

하나님의 영과 사사들의 윤리* **

이사야(남서울대)

1. 들어가는 말

모든 종교에 신앙이 있는 고대 근동에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신앙이 아닌 법궤를 말하고 있다.¹

*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52048).

** 본 논문은 제121차 한국구약학회 송년학술대회 <사사기와 설교>(2022. 12. 9.)에서 행한 주제발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법궤의 기능에 대해 벨하우젠(J. Wellhausen)과 바트케(W. Vatke)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의 보관함으로 보았다. Wellhausen, *Israelitische und jüdische Geschichte* (Berlin: verlag Walter de Gruyter & Co., 1958) 30-31; W. Vatke, *Die Religion des Alten Testaments nach den kanonischen Büchern entwickelt*, Bd. I (Berlin, 1835), 321; 이회학,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9), 295에서 중인. 라이헬(W. Reichel)은 하나님의 빈 보좌를 상징, 즉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 법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앉아있다고 생각하였고, 비어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법궤를 숭배했다고 말한다. W. Reichel, *Über vorhellenische Götterculte* (Wien, 1897), 24-26; 이회학, 윗 글, (2009), 293. 마틴 노트, 「민수기」 (국제성서주석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93. 원제 Noth, M., *Numbers: A Commentary*, OTL (trans. by James D. Martin,

전쟁터에 법궤가 자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뜻했고, 법궤가 없는 전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므로 패한다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² 신명기역사서는 법궤의 존재를 비중있게 다루며 시작한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와 함께’(לְפָנֵי אֲרוֹן יְהוָה) 리프네 아론 아도나이), 곧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수 6:6, 7, 13).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세겜에 모여 예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לְפָנֵי הָאֱלֹהִים) 리프네 하엘로힘) 즉 법궤 앞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다(수 24:1).³ 아백에서 치른 블레셋과의 첫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온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 법궤를 탈취당한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사건과 동일시되었다(삼상 4:22).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도 법궤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나타난다(삼하 11:11). 왕정이전과 초기시대에 법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잦았던 사사시대를 다루는 사사기에서 정작 법궤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사사 후기시대에 기브아인의 만행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

Philadelphia: Westminster, 1989). 이 외에 전쟁 때에 항상 가지고 다녔던 이스라엘의 전쟁수호신(F. Schwally, *Semitische Kriegaltertümer*, Leipzig, 1901, 4-5), 유목민의 생활 모습을 반영하는 축제 행렬의 성물(R. Hartmann, "Zeit und Lade," *ZAW* 37, 1918), 209-244; A. Bentzen, "The Cultic Use of the Story of the Ark in Samuel," *JBL* 67, 1948, 37-53; 발터 침멀리, 「구약신학」(김정준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원저 Zimmerli, W.,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Edinburgh : T. & T. Clark, 1978, 119), 그리고 야웨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는 하나님의 현존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희학, *윳글* (2009), 293-299;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 18집 (2005년 8월), 32-33.

2 O. Eissfeldt, "Die Lade Jahwehs in Geschichtserzählung, Sage und Lied," *Das Altertum* 14 (1968)=K. M. Beyse & H. J. Zobel, *Kleine Schriften zum Alten Testament*,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1), 191. 이경숙, *윳글* (2005), 33에서 중인.

3 이사야, "사사시대와 사사기의 하나님 임재 상징", 「종교연구」 58집 (2010년 봄), 279.

가 베나민 지파를 공동으로 응징하기 위해 법궤가 있던 벧엘에 모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투의 결과를 하나님께 물을 때의 모습으로 단 한 번 등장할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삿 20:27). 사사기에서 법궤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점유과정을 묘사하는 여호수아서와 왕정 초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문의 여지를 제공한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가 사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가?⁴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던’(사 3:7, 12; 4:1; 6:1; 10:6; 13:1)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사기에 법궤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또 다른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서 찾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제한 사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과 같은 정치권력과 정규군이 없던 사사시대에 카리스마적 지도자들로 대변되는 사사들은 백성을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낸 구원자였고, 그들의 구원 행동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고취시켰다.⁵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택하였음을 인준하고 공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름부음이다(삼상 10:1; 삼상 16:13 등). 그러나 사사기에서 웃니엘(삿 3: 10), 기드온(삿 6:34), 입다(삿 11:29), 삼손(삿 13:25; 14:6, 19; 15:14)은 기름부음 대신 하나님의 영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전통적인 양식인 기름부음 대신 영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낸 것이다.⁶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입어

4 이사야, 윗글 (2010), 281.

5 A. Malamat, “Charismatic Leadership in the Book of Judges,”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Garden City: Doubleday (1976), 159.

6 이사야, “야훼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92. 사사기에 등장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평화를 가져왔다. 이들의 비범한 혹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선천적인 것 아니라 영의 임재로 인함이었다.⁷ 민족 간의 전쟁, 권력을 둘러싼 투쟁, 초인적인 영웅, 비극적인 죽음 등 구약성서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흥미로운 드라마를 보여주는 사사시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셨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네 사사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사사기의 영 임재 본문이 윤리적·내면적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나님의 영이 임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내러티브 읽기

1) 옷니엘

옷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 영웅이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첫 카리스마적⁸ 지도자이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삿 3:9)로 소개된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일반적인 소개 공식이 아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로 소개된다. 갈렙이 큰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나안 정복시대에 여호수아가 북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자 모세의 후계자라면, 갈렙은 남쪽을 대

하는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에훗(삿 3:12-31)과 드보라(삿 4:1-5:31)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보도가 없는 전쟁영웅/카리스마적 지도자이다.

7 R. de Vaux, *Ancient Israel*, vol 1 (New York: McGraw-Hill, 1965), 1, 93, 151.

8 일반적으로 사사시대에 발견되는 황홀경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사사들이 행사한 지도력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charismatic’에 대해서는 M. Weber, *Ancient Judaism*, trans. by Hans, Gert and Don Martindale, New York: Free Press (1952), 18 이하; A. Alt,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Oxford: Basil (1966), 250 참조.

표하는 유다지파 사람이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니스 사람’이었다(수 14:6, 14). 그니스 사람이란 본래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창 15:19; 36:11). 출애굽 공동체는 야곱의 후손과 수많은 잡족(גֵּרִים 에레브 랫)이 함께 이룬 공동체이다(출 12:38). 잡족(에레브)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일하던 노예들로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는 출애굽 공동체가 여러 민족들로 섞인 다문화적 공동체였음을 일러주는 말이다. 출애굽 공동체는 처음부터 다문화적 공동체로 시작되었으며, 그 안에 섞인 여러 민족들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같이 동화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수많은 잡족도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이 종교 공동체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된다. 출애굽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 장정 60만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천(מֵאוֹת אל레프)을 숫자보다는 ‘씨족’으로 번역하여 대략 600개 정도의 가족단위가 출애굽에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다.⁹ 프레다임(T. E. Fretheim)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숫자를 설명하는데, 즉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출애굽과 더불어 시작된 한 시대의 끝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본문들이 있다는 점과 본문의 예언적인 언어가 출애굽 세대를 후대의 여러 세대들과 확실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략적인 인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출애굽 공동체는 여러 인종과 세대가 섞여있었던 점에는 이견이 없다. 민수기 11장 4절에 나타나는 칠십 장로 이야기에서 먹을거리(고기) 문제로 탐

9 N. Sarna, *Exporing Exodu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1986), 94-102;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강성렬 옮김), (서울: 서울장로교출판사, 2001), 233-234. 원저 Fretheim, Terence E., *Exodus* (Louisville : John Knox Press, 1991).

10 테렌스 E. 프레다임, 윗글 (2001), 234.

육을 품고 불평했던 ‘섞여 사는 무리’(מִצְרַיִם 하사프수프)도 바로 이 잡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중이 떠중이’ 혹은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이 군중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함께 끼어든 비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며, 애굽에서 즐겨 먹었던 고기와 다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선동하였다.¹¹ 그니스 사람 갈렙(수 14:6)은 그 잡족에 속한다. 그니스(=그나스)란 본래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의 이름이다(창 15:19; 36:11).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사람이라면 그는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 할 때에 섞여 있었던 ‘수많은 잡족’ 중 한 명이었을 것이고, 출애굽 여정 중에 유다 지파에 소속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갈렙의 믿음과 충성은 더욱 놀랍기만 하다. 본래 야곱의 후손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¹²

웃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그 또한 잡족 곧 이방인이었음을 말한다.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 역사에서 이방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웃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이방인 사사로서 구원자의 모델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고(삿 3:7),

11 테니스 T. 올슨, 「민수기」(차중순 옮김), (서울: 서울장로교출판사, 2000), 109. 원제 Olson, Dennis T., *Numbers* (Louisville, KY : John Knox Press, 1996). 올슨은 이들을 ‘인간쓰레기’(riffraff)로까지 번역한다.

12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료이자 훌륭한 파트너였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갈렙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성경책 목록 가운데에도 남아있는 여호수아와는 달리 갈렙은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민수기 13-14장과 여호수아 14-15장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사사기 1장에서 사사 웃니엘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어 장인이 되는 정도로만 더 언급된다. 그것도 여호수아 15장과 내용이 겹칠 뿐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자 가나안 정복의 영웅으로 남아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코 갈렙의 역할이 미미해서가 아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폭동에 처음 맞섰던 이도 갈렙 혼자였고(민 13:30),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갈렙 한 사람이었을 정도로(민 14:24), 갈렙의 역할은 대단했다. 이와 같은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중’, ‘마음이 다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이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팔 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아래에서 신음했다(삿 3:8).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닌 ‘아람 나하라임(אֲרָם נַחְרָאִים; אֲרָם)’으로 등장한다.¹³ ‘강들 사이의 아람’이라는 의미이다.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보다는 가까운 에돔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의 구산 리사다임은 고유명사로 보기 어렵다.¹⁴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매우 포악한 왕 아래에서 시달렸음을 말해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세우신 구원자가 이방인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다. 옷니엘은 이미 기랏 세벨(=드벨)을 쳐서 점령한 적이 있다. 그 공을 인정받아 큰아버지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수 15:17; 삿 1:13).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고, 사위인 옷니엘이 헤브론 주변의 기랏 세벨을 점령한 것은 갈렙에게서 시작된 유다 자손의 영토 싸움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옷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받으며 영이 임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옷니엘의 삶과 영성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다만 그 영이 옷니엘로 하여금 싸움에 나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וַתְּהִי עִלָּיו רוּחַ יְהוָה: 바테히 알라이브 루아호 야웨)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

13 많은 학자들이 아람 나하라임의 אֲרָם(아람)을 אֲדָם(에돔)으로 읽는다. J. A. Soggin, *Judges: A Commentary*, second edition, OTL (trans. by John Bowden, London: SCM, 1987), 46; G. B.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New York: Scribner's Sons, 1903), 243.

14 구산리사다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J. Martin, *The Book of Judges*,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42 참조. ‘리사다임’(두 배나 악한)을 이름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인 별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니라”(삿 3:10). 웃니엘에게 임재한 영의 역할은 군사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웃니엘이 죽기까지 한 세대 동안(=사십 년) 찾아온 평화는 잡족에 불과했던 그니스 족속에게 야곱의 후손이 감사해야 할 기간으로 남는다.

2) 기드온

웃니엘이 죽은 후 왼손잡이¹⁵ 에훗과 여선지자¹⁶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각각 모압과 왕 에글론과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했으나 이들에게서는 영 임재 보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두 번째 사사는 기드온이다. 그의 부르심은 모세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한다.¹⁷ 사사시대에 베두인 족속들(미디안,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추수기를 맞으면 낙타를 이용해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해 공격해 오곤 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파는 므낫세 사람들이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타작마당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줄 표징을 구했다.¹⁸ ‘큰 용사/용맹한 전사’(גִּבּוֹר הַחַיִּל) 김보르 헤하일, 삿

15 히브리어에서는 왼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베나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게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 묶인 사람(יָמִינִי־בֵּן אִישׁ אֲשֶׁר יָדוֹ הַיְמָנִית)’(삿 3:15)이다.

16 드보라를 이사 네비아(נְבִיאָה אִשָּׁה) 여자 선지자, 삿 4:4)로 부르는 것은 뒤이어 나오는 기드온을 이쉬 나비(נָבִיא אִישׁ) 남자 선지자, 삿 6:8)로 부르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17 윌프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신학입문」(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158. 원저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18 기드온은 소심한 성격에 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출33:20; 삿 13:22). 기드온의 소령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 사이에 긴 대화양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삿 6:11-24). 하나님의 사자는 처음부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말한다(삿

6:12)라는 호칭은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기에, 조롱으로 비치기도 한다.¹⁹ 그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통해 그 표징을 얻고자 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인 염소새끼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림으로 기드온의 요구를 다 받아 주셨다.²⁰ 하나님은 두려워 떨던 기드온을 안심시키며 위로하셨고,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יְהוָה שָׁלוֹם)’이라 불렀다. 이 제단의 의미는 좁게 보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의 승리와 평화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에서 궁극적인 평화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과의 싸움으로 이어졌고, 여호와 살롬의 제단에 불이 붙는 그 밤에 다른 한쪽에서는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의 목상이 불타고 있었다(삿 6:25-32).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고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때이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יְהוָה רוּחָו יָרַד עַל-גִּדְוֹן) 베루아흐 아도나이라 브샤에트 기드온)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

6:12).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자신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자신 또한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긴 기드온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극히 주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삿 6:15). 이 모습은 마치 다음 세대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의 주저함을 떠올리게 한다(삼상 9:21).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19 Mark E. Biddle, *Reading Judges*, Smyth & Helwyz (2012), 79.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기드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34-135.

20 여호와와 사자와 기드온과의 이 대화는 출애굽 사건을 소재로 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이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삿 6:13).

을 받으니라”(삿 6:34). ‘임하시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바쉬의 기본적인 뜻은 ‘(옷을) 입다’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쌌다는 말이다.²¹ 이는 영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사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렬히 사로잡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영에 의해 개인이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²²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을 옷입혔다’²³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독특한 표현은 후대의 표현양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²⁴ 기드온을 감싼 영은 그를 겁 많고 주저하던 사람에서 지혜롭고 용감한 용사로 전환시켰다. 영이 입한 기드온의 소환에 응수한 이들의 수가 삼만 이천이나 된 것을 두고 볼링(R. G. Boling)은 이들의 자원적인 응답을 ‘사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상징’한다고 말한다.²⁵ 그리고 힐데브란트(W. Hildebrandt)는 여기서 영의 임재를 사람을 소집하는 능력과 연관

-
- 21 70인역(LXX)인 ἐνδυναμώω가 누가복음 24:49에서 사용되었다.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로이드 R. 니브, 윗글 (2005), 56.
- 22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차준희·한사무엘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56. 원제 Neve, 로이드 R.,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 23 BDB, 528은 이것을 ‘and the Spirit of Yahweh clothed itself with Gideon’으로 번역하고, G. F. Moore를 언급하면서 ‘그를 취했다’(took possession of him)로 설명한다. 부버(M. Buber, *The Prophetic Faith* (New York: Harper & Low, 1949), 6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격렬한 호흡, 즉 ‘여호와와 루아흐가 그가 선택한 자 위에 밀려들었고 그를 붙잡았다’.” 마이어슨(M. Myers, *I Chronicles* (Garden City: Doubleday, 1965), 97)는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역대상 12:18(“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시니”)를 구약의 영감과 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성육신사상의 선구자로 해석한다. 로이드 R. 니브, 윗글 (2005), 57.
- 24 J. A. Soggin, *Judges: A Commentary*, second edition, OTL (trans. by John Bowden, London: SCM, 1987), 129; A. G. Auld, “Gideon: Hacking at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VT 39, (1989), 263; Robert G. Boling, *Judges, AB6A* (New York: Doubleday, 1975), 138; Wonsuk Ma, *The Sp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 its Eschatological Significance* (US: UMI, 1996), 96에서 증인.
- 25 R. G. Boling, *Judges, AB6A* (New York: Doubleday, 1975), 83;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I: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Monarchy, OTL (trans. by John Bowde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4), 80.

시키고 있다. 전쟁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이 숫자는 경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기드온은 영이 임재한 순간부터 군사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즉각적으로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해 있는 여러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전투에 나가기 전 기드온은 두 번 하나님께 자기의 사명을 확증해 주기를 구했다.²⁷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한번은 양털에 이슬을 내리셨고, 다른 한 번은 양털 주위의 땅에 이슬을 내리셨다(삿 6:36-40). 아직 적군의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드온의 군대는 삼만이천에서 만 명으로, 그리고 다시 삼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90%가 넘는 병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450배가 넘는 병력(십삼만오천, 삿 8:10)을 상대해야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 다만 성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줄인 이유를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뿐이다(삿 7:2).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은 그들의 무기에서도 드러난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잠들어있는 적군을 깨우기 위한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밤길을 걸어가기 위한 횃불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전부였고, 그것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한다(삿 7:20). 구약성서에서 이날의 위대한 승리는 이방 통치와 강제노동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잡았다(사 9:4).

26 윌프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신학입문」 (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158-159. 원제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27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전히 소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섬세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3) 입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가나안에 존재하던 우상들이 총체적으로 등장한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림몬), 시돈의 신, 모압의 신(=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밀곰), 블레셋 사람들의 신(=다곤)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고,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있었다(삿 10:6-9). 입다 이야기는 진노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백성의 반복된 악행으로 인한 결과였다. 하나님은 ‘다시는(דַּוְיִן אֵלֹהִים)로-오시프)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삿 10:13), 백성은 ‘오늘(הַיּוֹם הַזֶּה) 하옵 하제, ‘딱 한번만’) 우리를 건져달라’고 매달렸다(삿 10:15). 결국 이스라엘의 간구는 이번에도 통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에서 ‘근심’으로 선회했다(삿 10:16).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입다를 통해 전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사건과 일반적인 윤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입다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와 닮은꼴이 있다. 두 사람 모두 ‘큰 용사’²⁸로 소개된다는 점과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재현된다는 점, 그리고 기드온의 소명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 사이에 대화 양식이 나타났던 것처럼, 입다의 등장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 양식이 먼저 등장한다는 점(삿 10:10-16)이 그렇다.

28 여기서 ‘큰 용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 용병’의 의미로 읽힐 수도 있다. 윌프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신학입문』, 서울: 이레서원(1995), 159 참조. 입다 이야기는 ‘큰 용사’, ‘기생이 낳은 아들’, ‘장관’, ‘머리’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입다와 기드온의 가장 큰 차이는 부름에 임하는 자세이다. 기드온이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모습을 보인 반면, 입다는 준비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협상의 대가였다. 길르앗의 아내와 이복형제들에 의해 지파에서 쫓겨난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잡류, 샷 11:3)과 함께 초원지대 뚝에 거주했다.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은, 이전의 아비멜렉(샷 9:4)이나 훗날의 다윗(삼상 22:2)처럼, 입다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병 부대로 조성해 세력을 형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암몬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음에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제시한 자리는 군사 지도자였지만(קצין 카친/장관, 샷 11:6), 입다는 통치자까지 협상을 통해 약속받았다(שׂרָאָה 로쉬/머리, 샷 11:8, 9. 머리&장관, 샷 11:11). 자신을 군사 지도자로 삼기 위해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을 설득하여 통치자까지 된 것이다. 입다가 통치자로 인정받는 장면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전에 스스로 권좌에 오르려 했다가 실패한 아비멜렉과는 달리 백성에 의해 인준을 받았다는 점이고,²⁹ 둘째는 입다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샷 11:10). 이는 앞으로 펼쳐질 왕정의 시초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싸움에 나서기 전에 암몬 왕과도 협상을 시도했다. 이미 백성의 통치자로 인정받은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자기 땅(‘내 땅’)을 치러 왔냐고 물었다(מַה־לִּי וְלָךְ כִּי־בָאתָ אֵלַי לְהִלָּחֵם בְּאֶרֶץ־יִשְׂרָאֵל 마-리 바라크 키-바타 엘라이 레힐라헬 베아르치, 샷 11:12). ‘내 땅’은 한 나라의

29 제이콥슨(T. Jacobsen)은 이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입다의 이야기는 원시민주주의를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 Jacobsen, *The Intellectual Adventure of Ancient Man: an Essay on Speculative Thought in the Ancient Near East* (edited by Henri Frankfort, H. A. Frankfort, John A. Wilson, Thorkild Jacobsen & William A. Irw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6), 128.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내뱉는 선언이다. 암몬 왕 또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내 땅'이라고 응수했다(삿 11:13). 이때부터 입다의 현란한 말싸움과 협상이 시작되었다. 입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시혼과 그 백성을 넘겨주셔서 그들을 쳐서 점령하여 들어왔으니 암몬 자손의 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각 민족은 자기들의 신이 준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난 삼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을 차지해 살아오고 있으니 땅의 점유권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땅이 암몬 자손의 땅이라면 일찌감치 암몬 사람들이 도로 찾아갔을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니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호와께서 판결하실 일이라는 것이다. 암몬 왕은 입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전쟁은 벌어지고야 말았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때도 바로 이 시점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וַתְּהִי עַל-יְפֹתָי רוּחַ יְהוָה) 바테히 알-입타 루아 호 아도나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삿 11:29).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이전에 입다는 이미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인준을 얻었고 백성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 암몬과의 외교적 해결책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입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의 지도자직에 대한 백성의 비준과는 관련이 없게 된다. 이미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고, 외교적 해결책이 실패한 후 전쟁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지도자 선출’과는 무관하고 군사적 역할에 국한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 그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쟁을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서원이 그것이다. 그는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삿 11:31).³⁰ 문제는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일어났다.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고, 입다의 딸은 아버지를 위로했다(삿 11:36). 두 달 후, 그는 외동딸을 번제물로 바쳐서 자기가 서원한 바를 지켰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삭의 아케다(창 22장)와 맥을 같이하는 절대적인 순종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순종의 모델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만약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입다의 외동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감사하면서 그를 죽여도 되는가? 그 사람은 죽여도 좋은 사람인가? 딸은 죽어서 안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인가? 입다를 영접한 사람이 그의 외동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번제물이 되어선 안될 일이었다.

입다가 딸을 제물을 바친 사건의 배후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있었던 인신제사의식이 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이고, 제거되어야 할 이교도의 제사일 뿐이다. 입다는 그의 서원으로 인해 딸을 번제로 드림으로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암몬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다.³¹ 그렇다면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30 구약시대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남아있던 여인들이 나가 맞이하던 전통을 반영한다(삼상 18:6-7).

31 M.J. Smith,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Rheme in the Book of Judges* (US: UMI, 2004), 178-179.

없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지만 (창 22:1),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데에서 온 협상에 불과하고, 백성의 머리에 오르고자 한 욕심이 빚어낸 참극이다. 그의 서원은 잘못된 기도였을 뿐이다. 잘못 서원한 자의 형편은 다시 살피보는 것이 마땅했다(레 27:8 참조). 입다의 서원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종의 협상 시도에 불과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은 슬퍼하기 마련이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했다(창 23:2). 야곱은 피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차라리 스올에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창 37:35).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했지만, 다윗은 슬퍼했다. 신하들이 나라가 운영을 위해 그의 슬픔을 만류할 정도였다(삼하 19:1-8). 하지만 입다는 딸이 맞이할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딸로 인하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וְאַתָּה הֵייתָ בְעַכְרָי) 베아트 하이트 베오크라이). 아카르는 공동체가 멸망한다거나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 꾸짖는 말이다. 이 단어는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יִשְׂרָאֵל) עֲכָרְךָ הָאֵתָהּ זֶה עֲכָרְךָ יִשְׂרָאֵ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לֹא עֲכָרְתִּי אֶת-יִשְׂרָאֵל) 로 아카르티 에트-이스라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왕상 18:17-18). 딸의 죽음을 슬퍼하기 보다는 권력에 눈먼 아버지가 대가 끊기게 된 것을 두고 딸을 꾸짖는 것이다. 딸의 죽음을 위한 애곡은 아버지가 아닌 친구들이 대신했다(삿 11:38, 40). 입다의 관심은 오직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입다의 잔인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에도 드

리난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시대에도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태도는 여호수아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기드온의 고향)의 만물 포도(=기드온)보다 낫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고, 공동체 안에서의 살롬을 모색했다. 입다는 싸움을 택했다. 그가 싸움을 택한 데에는 에브라임의 불평이 협박에 가까웠다는 것(삿 12:1)과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삿 12:4)이라고 경멸한 것도 한몫했다. 그는 강을 건너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하나 하나에게 ‘쉽블렛’(급류)을 발음하게 하여 ‘쉬’ 발음을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블렛’(작은 다발)으로 발음하면 가치없이 죽어버렸다. 그날 요단강 나루터는 동족의 피로 붉게 물들 수밖에 없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군사적 지도자로서는 성공한 사사였지만, 좋은 지도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지도자였고, 하나님뿐 아니라 백성의 선택까지 받은 첫 사사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외동딸과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했다.

4) 삼손

삼손 이야기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면들을 보여준다. 첫째, 다른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나 회개에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³² 둘째는 불

32 사사기는 구약의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위한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역사의 교훈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네 단계의 순환적 역사(이스라엘의 범죄-하나님의 징벌-이스라엘의 회개-하나님의 구원)를 통해 잘 드러난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와 같은 네 단계의 역사가 끊임없이 순환되던 시대였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순환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하면 복과 생명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가 미치리라는 신명기의 사상(신28장조)에 회개와 구원이라는 요소가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탄생기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³³ 부모의 불임기사 역시 독특하다.³⁴ 주전 13세기, 철기문명으로 무장하고 가나안의 해안 지역에 진입해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고,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삼손의 출생은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삿 13:5)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자식이 없어 고통받지도, 자식을 구한 적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의 하나님을 사자로부터 임신하여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소식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들었다.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을 지시했다(삿 13:5, 7, 14).³⁵ 셋째, 다른 사사들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방 민족과 싸웠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완수했지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주어졌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임재한 영의 임재 보도 역시 독특하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 웃니엘, 기드온,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보도가 각각 한 번

33 사사기 13장은 장 전체에 걸쳐 삼손의 출생을 자세히 보도한다. 성경에서 탄생기사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은 흔하지 않다. 신약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첫 무대를 장식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아브라함이 백 세에 낳은 이삭,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등의 인물들과 창세기를 제외한 인물로는 사무엘과 삼손 뿐이다. 이들 탄생기사를 갖고 있는 인물들은 한 시대를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다.

34 삼손의 아버지는 단 지파 마노아였고 어머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불임의 여인으로 소개된다. 삼손의 부모 중 누구도 불임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이는 불임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사라의 모습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과는 대조된다.

35 나실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구별된 자’, ‘바쳐진 자’, ‘헌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헌신의 표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민 6:1-21). 대개의 경우 나실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었으나, 삼손의 경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씩 나타나는 반면, 삼손에게는 무려 네 번이나 등장한다. 하지만 그에게 임한 영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역할과는 상관이 없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다. 삼손의 출생 보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시로 삼손에게 임재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וְהַיְהוָה לְפָעֻמוֹ וְהַחֲלֵל רוּחַ יְהוָה אֶדְוֹנָי רֵעָאִימוֹ)”(삿 13:24-25, 첫 번째 임재). ‘움직이다’에 사용된 동사 파암은 구약 전체에서 오직 네 번 사용된 단어인데, 항상 ‘번민하다’(to trouble)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창 41:8; 시 77:5; 단 2:1, 3). 여기서는 영적인 번민, 즉 육체적인 용맹스러움 뒤에 이어질 격렬한 행동들을 예상하면서 생겨난 불안감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³⁶

청년 삼손의 첫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삼손은 딘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생떼를 썼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삿 14:3).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שָׂרָה בְעֵינַי וְיִיָּא כִּי-חִי יִשְׂרָאֵל)를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이다. 이 말은 사사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³⁷ 결혼을 위해 내려가던 중 삼손은 딘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의 습격을 받았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을 보였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וְהַחֲזִיקָה עִלָּיו רוּחַ יְהוָה) 강하게 임하니

36 로이드 R. 니브, 윌글 (2005), 57.

37 박유미, 윌글 (2018), 261-262.

바티츨라 알라이브 루아흐 아도나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삿 14:6, 두 번째 임재). 이 일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 강력한 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얼마 후 동물의 주검에서 손으로 꿀을 떠먹는 삼손의 모습은, 레위기의 정결법이 사체와 접촉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레 11:24-28), 무언가 불길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준다(삿 14:8-9).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삿 13:4)는 하나님의 사자의 당부가 무너지고 있었다. 택함받은 나실인으로 누구보다도 정결법에 유의해야 하지만, 아직 철없는 청년 삼손에게 정결법과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중요할 뿐이었다.

혼인식에 참여한 친구 삼십 명(삿 14:11)은 친구가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붙인 그들은 신랑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지만, 낯선 자를 감시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손은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에 있던 꿀을 수수께끼로 냈고 베옷과 겹옷 삼십 벌을 내기에 걸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신부와 신부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했고(삿 14:15), 신부에게 행복해야 할 혼인식은 공포로 변해버렸다. 나실인의 비밀 유지는 신부의 울음과 눈물에 무너졌고, 삼손은 그들에게 내기에 건 옷을 주어야 했다. 분노에 찬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잡자기 임하시매”(וַתִּצְלַח עָלָיו רִיחַ יְהוָה) 바티츨라 알라이브 루아흐 아도나이. 삿 14:19. 세 번째 임재), 그는 아스글론에서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혼인은 파기되었고, 삼손은 여우 삼백 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 추수를 앞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태웠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태워죽였다. 아마도 삼

손을 두려워하여 그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지만, 이는 오히려 삼손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수수께끼 사건은 복수에 재복수로 이어져 수 많은 사람들의 살육으로 번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에 올라와 레히에 진을 삼천 명의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두 겹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갑자기 임하였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הַיְהוָה אֱלֹהֵי שָׁמְסוֹן בָּרָחַץ בְּאֵזְרוֹתָיו) 바티츨라 알라이브 루야호 아도나이)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삿 15:14. 네 번째 입재)

사사기 14-15장에 등장하는 세 본문 모두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갑자기 임했다. 세 번 모두 동일한 동사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동사 찰라는 충만한 힘과 갑작스러움을 나타낸다.³⁸ ‘웃입다’라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찰라는 영이 삼손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외적인 방법으로 삼손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영에 사로잡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암시된다. 이 동사는 또한 어떤 행동이 뒤따를지도 알려준다. 삼손에게 나타나는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은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전 다른 사사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역할이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준 카리스마적 능력으로 싸우지만,³⁹ 그저 사자를 찢어죽이고, 의복을 얻기 위해 삼십 명을 죽이고, 자기를 포박했

38 BDB, 857.

39 A. Soggin, *윗글* (1987), 229-30.

던 끈을 끊고 사람을 죽이는⁴⁰ 등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나 위업을 수행할 뿐이다.

삼손이 혼자서 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는 동안 삼천 명의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싸움을 구경만 했고,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탈진하기를 기다렸다. 삼손은 자신을 지켜보는 유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에게 영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삿 15:18). 자신의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였고,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고 힘을 얻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다들 도망을 가버렸던 듯하다. 삼손은 하나님이 터치신 샘 이름을 ‘엔학고레’ 즉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불렀다(삿 15:19).⁴¹

40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주워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후에(삿 15:15)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삿 15:16)라고 찬송한다. 이것이 단순한 독백인지 아니면 노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삼손은 분명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해냈음을 고백했던 것이다. 나귀의 ‘새 턱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의 주검 일부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자의 주검이라고 볼 수 있다.

41 이 장면은 삼손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진지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구약성서 안에는 하나님이 샘을 터쳐 주신 이야기가 여럿 기록되어 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방성대곡하며 우는 일 뿐이었다. 아무도 도와 줄 이가 없는 광야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때에 하나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샘을 터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다.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적적으로 샘물을 터치시고 마시게 해주셨던 것이다(창 21:8-21).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 한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죽을뻔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었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대들었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땅 가사로 가서 기생을 만나 소동을 일으키더니(삿 16:1-3)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들릴라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렉 골짜기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⁴²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고자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은 천백 개씩이라는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물에 넘어간 들릴라의 집요한 재촉은 삼손을 번뇌시켜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고(삿 16:16), 결국 말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하게 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의 일부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리털은 상징일 뿐이다.⁴³ 중요한 것은 삼손의 능력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며 원망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했던 것을 보면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다(출 17:1-7). 이때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인 신명기 8장 15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일러주고 있다. 구약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신 분이시고(시 78:15),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시 114:8).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사 49:10).

42 대한성서공회,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성경전서」 해설.

43 나실인이 머리를 깎아야 할 때가 있다.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머리털을 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민 6장). 삼손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했을 때도 머리털을 밀어야 했고,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도 머리털을 밀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몇 번 머리를 밀었어야 했다. 머리털을 밀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머리털만 기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을 때 정말 능력이 떠났다는 것이다. 머리가 밀린 삼손은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키나 덩치도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덩치가 컸다면 으레 큰 덩치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이다.⁴⁴ 그는 이제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다. 사사기는 삼손이 머리털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삿 16:20). 밀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삿 16:22), 삼손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끌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삿 16:28).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닌 한 나실인이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삼손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레히에서 샘이 터진 사건과 그의 죽음 사건이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다. 그가 무너뜨린 다곤 신전에 깔려죽은 블레셋 사람의 수는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내지 못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 압제자와의 전쟁을 완수하지 못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은 왕정시대의 다윗이었다.⁴⁵

44 K. L. Younger, *Judges/Ruth* (Zondervan, 2002), 316-317; 박유미, 윗글 (2018), 285.

45 박유미, 윗글 (2018), 252, 297.

3. 나가는 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전쟁시에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사기는 법궤 대신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분명 사사시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던 법궤가 존재하던 때였으나, 사사기 저자는 법궤의 자리를 소수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채우고 있다. 결국 사사기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선택하는 이전의 기름부음 양식을 대신하는 또 다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큰아버지 갈렙처럼 이방인이었던 옷니엘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카리스마적 지도자이다. 그가 죽기까지 한 세대 동안 찾아온 평화는 야곱의 후손이 그니스 족속에게 빛을 진 기간이었다. 겹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구원의 징표를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때의 징표를 보이셨고, 과거의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할 구원을 베푸셨으며, ‘미디안의 날’은 이방 통치와 강제노동의 멍에에서 해방된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일반적인 윤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는 영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잘못된 서원을 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이방의 인신 제사를 따랐고, 공동체의 분열과 파괴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영이 네 번이나 임한 삼손은 자기에게 임한 영을 개인적인 욕심과 복수에만 사용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태어난 목적이었으나 그가 일으킨 블레셋과의 싸움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렀다. 다곤 신전에서의 죽음 사건조차 하나님의 영광은 무관하

www.kci.go.kr

다. 그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 영웅들 중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유일한 사사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좋은 리더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영이 임하지 않은 왼손잡이 에훗과 여선지자 드보라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 입다와 삼손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사사들이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 군사적인 업적과 관련될 뿐, 그 영의 임재는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일이었으며, 영이 임한 사람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또한 영이 임한 사사의 신앙이나 윤리적, 내면적인 변화와는 무관하다.⁴⁶

참고문헌

- 김영진, “사사와 구원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4집 (2006년 4월), 39-57.
- 김의원·민영진, 『사사기/룻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대한성서공회,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석경전서』 해설.
- 데니스 T. 올슨, 『민수기』 (차종순 옮김), (서울: 서울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 Olson, Dennis T., *Numbers* (Louisville, KY : John Knox Press, 1996).
- 로이드 R. 니브, 『구약의 성령론』 (차준희·한사무엘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원제 Neve, 로이드 R.,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 마틴 노트, 『민수기』 (국제성서주석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원제 Noth, M., *Numbers: A Commentary*, OTL (trans. by James D. Martin, Philadelphia: Westminster, 1989).

46 이사야,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55-61.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재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 이후이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מְעַלְלָהּ וְהַיְהוָה אֱלֹהֵינוּ מִהַיּוֹם הַהוּא וְעַתָּה) 바티츨라 루아흐 아도나이 엘-다비드 메하임 하후 바마엘라. 삼상 16:13). 특히 사사기의 결말(삿 17-21 장)은 ‘사람마다 제멋대로 행하던’(삿 17:6; 18:1; 19:1; 21:26) 이 시대가 구약의 어느 시대보다 비윤리적인 시대였음을 일러준다. 하나님의 영이 내면적·윤리적 변화의 힘으로 역사한 것은 포로시대 이후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 박유미,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발터 브루지만 외, 「구약신학과의 만남」 (차준희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원제 Brueggemann, W, etc.,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 발터 칩멀리, 「구약신학」 (김정준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원제 Zimmerli, W.,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Edinburgh : T. & T. Clark, 1978).
- 서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구약논단」 18집 (2005년 8월), 73-83.
- 윌프 힐데브란트, 「구약의 성령신학입문」 (김진섭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5). 원제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5).
- 이경숙, “솔로몬 성전과 법궤”, 「구약논단」 18집 (2005년 8월), 30-52.
- 이사야, “사사시대와 사사기의 하나님 임재 상징”, 「종교연구」 58집 (2010년 봄), 275-300.
- 이사야, “야훼 임재의 상징과 영”,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85-198.
-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과 신인식”,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44-69.
- 이희학,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9).
-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강성렬 옮김), (서울: 서울장로교출판사, 2001). 원제 Fretheim, Terence E., *Exodus* (Louisville : John Knox Press, 1991).
- Albertz, R.,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I: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Monarchy*, OTL (trans. by John Bowde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1994).
- Alt, A., *Essays on Old Testament History and Religion* (Oxford: Basil, 1966).
- Auld, A.G., “Gideon: Hacking at the Heart of the Old Testament,” *VT* 39 (1989), 257-267.
- Bentzen, A., “The Cultic Use of the Story of the Ark in Samuel,” *JBL* 67 (1948), 37-53.
- Biddle, Mark E., *Reading Judges* (Smyth & Helwyz, 2012).
- Boling, Robert G., *Judges*, AB6A (New York: Doubleday, 1975).
- Buber, M., *The Prophetic Faith* (New York: Harper & Low, 1949).
- de Vaux, R., *Ancient Israel*, vol 1 (New York: McGraw-Hill, 1965).
- Eissfeldt, O., “Die Lade Jahwehs in Geschichtserzählung, Sage und Lied,” *Das Altertum* 14 (1968)=K. M. Beyse & H. J. Zobel, *Kleine Schriften zum Alten Testament*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1).
- Gray, G.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Numbers*, ICC (New York:

- Scribner's Sons, 1903).
- Gross, H., "masha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IX* (2006), 68-71.
- Hartmann, R., "Zeit und Lade," *ZAW* 37 (1918), 209-244.
- Jacobsen, T., *The Intellectual Adventure of Ancient Man: an Essay on Speculative Thought in the Ancient Near East* (edited by Henri Frankfort, H. A. Frankfort, John A. Wilson, Thorkild Jacobsen & William A. Irwi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6).
- Ma, Wonsuk,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 its Eschatological Significance* (US: UMI, 1996).
- Malamat, A., "Charismatic Leadership in the Book of Judges,"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Garden City: Doubleday, 1976). 152-168.
- Martin, J., *The Book of Judges*,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Reichel, W. *Über vorhellenische Götterculte* (Wien, 1897).
- Sarna, N., *Exporing Exodus: The Heritage of Biblical Israel* (New York: Schocken Books, 1986).
- Schwally, F., *Semitische Kriegeraltertümer* (Leipzig, 1901).
- Smith, M. J., *The Failure of the Family as a Rheme in the Book of Judges* (US: UMI, 2004).
- Soggin, J. A., *Judges: A Commentary*, second edition, OTL (trans. by John Bowden, London: SCM, 1987).
- Tigay, J.,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Vatke, W., *Die Religion des Alten Testaments nach den kanonischen Büchern entwickelt*, Bd. I (Berlin, 1835).
- Weber, M., *Ancient Judaism* (trans. by Hans. Gert and Don Martindale, New York: Free Press, 1952).
- Wellhausen, J., *Israelitische und Jüdische Geschichte* (Berlin: verlag Walter de Gruyter & Co., 1958).
- Younger, K. L., *Judges/Ruth* (Zondervan, 2002).

검색어

하나님의 영, 사사기, 법궤, 상징, 윤리, 윤리적 내면적 변화, 군사적 업적

www.kci.go.kr

[ABSTRACT]

The Spirit of God and the Ethics of the Judges

Saya Lee

Namseo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od's Spirit in the Judges period, in which the judges in the book of Judges were symbols of God's presence in the age of Judges, replacing the Ark of the Covenant. In the Old Testament,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acknowledging and announcing that God had chosen the leaders of Israel was anointing with oil. Samuel anointed Saul (1 Sam 10:1) and David (1 Sam 16:13) as leaders. However, in the book of Judges, Othniel (Judges 3:10), Gideon (Judges 6:34), Jephthah (Judges 11:29), and Samson (Judges 13:25; 14:6,19; 15:14) were not anointed by God. Through the presence of the spirit, they became the leaders of Israel and saved the Israelites from the oppression of the Gentiles. This wa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anointing. These leaders, clothed with the Spirit of God, have won wars and brought peace. Their extraordinary or supernatural powers were not innate, but due to the presence of the spirit. The period of the judges, which shows more convoluted dramas than any other part of the Old Testament, such as wars between nations, struggles for power, superhuman heroes, and tragic deaths, shows that God was with the people of Israel even in difficult situations. Obviously, the period of Judges was the time when the ark, which was the symbol of God's presence, existed, but the author of the book of Judges did not mention the ark, but instead filled

www.kci.go.kr

the place with a small number of charismatic leaders. After all, the Spirit of God in Judges is showing another symbol of God's presence, replacing the previous form of anointing to select people.

Othniel, who was a stranger like his uncle Caleb, was the first charismatic leader who saved Israel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The peace that came for a generation until his death was the period Jacob's descendants owed to the Kenizzites. It was the Spirit of God that made the cowardly and timid Gideon into a mighty warrior. To Gideon seeking a sign of salvation, God showed the sign of the time of the Exodus, provided salvation that Israel could not boast of, and the 'day of Midian' was remembered as an event of liberation from foreign rule and slavery. Jephthah, who won the war against Ammon, was the protagonist of an incident that cannot be understood by general ethics and common sense. Jephthah, in whom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did not fully trust God who gave him the Spirit and made the wrong vow. He won the war, but he followed the Gentile human sacrifice and caused the division and destruction of the community. Samson, who received the Spirit of God four times, used the Spirit that came upon him only for personal greed and revenge. The purpose of his birth was to save Israel from the Philistines, but the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he made remained only on a personal level. Even his death in the temple of Dagon has nothing to do with God's spirit. He is the only judge among the war heroes in the book of Judges who failed to complete his given mission.

Judges with the Spirit of God are not only remembered as good leaders. The Spirit of God appearing in the book of Judges was only related to military achievements, yet the presence of the Spirit was not continuous but temporary, and it did not cause any ethical or internal changes to the person upon whom the Spirit came.

key words

Spirit of God, Ark, The Book of Judges, Symbol, Ethics,
Ethical and Internal Change, Military Achievements

투고일: 2023년 01월 26일

심사일: 2023년 0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